

한라에서 백두까지 대순례기도

4일 금강사에서 경남불교평화연대 창립

부산, 경남 지역 스님들이 불교로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경남불교평화연대는 9월 4일 금강사에서 창립대회를 열었다.

경남불교평화연대(대표 자홍, 이하 연대는 9월 4일 오후 2시 창원 금강사에서 창립대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창립대회는 삼귀의, 반야심경, 고문 및 자문위원의 축사, 대표 자홍 스님의 기법사 등의 순으로 여법하게 진행됐다. 대표 자홍 스님은 기법사에서 "피폐해진 우리 사회를 치유하고 상생의 길로 인도할 유일한 방법은 부처님의 가르침뿐"이라며 "분단된 남과 북의 마음을 여는 방법은 정치가 아닌 불법교포를 통한 불심

에서 해답을 찾아야한다"고 말했다. 향후 계획으로는 △한라산 백담에서 백두산 천지연까지 평화통일 대순례를 추진하고 △불교대학에서 평화통일을 위한 강좌를 개설해 통일을 준비하며 △사회적 약자에 보살행을 실천하는 복지사업 등을 실천해 된다.

연대는 자홍 스님(금강사 주지)을 대표로 도성 스님(前 해인사 주지), 법타 스님(동국대 정각원장), 진관 스님(종단협의회 불교인권위원장), 선진구 김해 정토원장, 조영진 경남대 명예교수 등이 고문을 맡았다. (055) 253-0108 박지원 기자

대학에서 평화통일을 위한 강좌를 개설해 통일을 준비하며 △사회적 약자에 보살행을 실천하는 복지사업 등을 실천해 된다.

연대는 자홍 스님(금강사 주지)을 대표로 도성 스님(前 해인사 주지), 법타 스님(동국대 정각원장), 진관 스님(종단협의회 불교인권위원장), 선진구 김해 정토원장, 조영진 경남대 명예교수 등이 고문을 맡았다. (055) 253-0108 박지원 기자

“관세음보살 100만 희망 노래”

삼광사, 관음정진 백만독 백일기도 원만 회향

2011년까지 전국의 천태종 사찰에서 릴레이로 봉행하는 '일심정진 관음정진 백만독 백일기도'의 첫 번째 사찰인 부산 삼광사가 9월 8일 100일기도를 원만 회향했다.

삼광사(주지 화산)는 9월 8일 지관전에서 '일심정진 관음정진 백만독 백일기도' 회향법회를 봉행했다. 2011년 상월원각 대조사 탄신 100주년을 맞아 봉행중인 백일기도는 지난 6월 1일부터 시작해 1500여 명의 불자들이 뜨거운 신심과 원력을 보태며 하루 1만 관음정진으로 씬 없이 기도했다.

염불선을 중시하는 천태종의 소의경전 <법화경>에는 "세상살이의 어려움을 보살피는 신통력이 뛰어난 관세음보살을 염송하면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다. 또한, 천태종 중창조인 상월원각 대조사 역시 "일심이 상정하면 처처가 연화계"라고 설한 바 있다.

삼광사를 찾은 불자들은 이런 가르침을 가슴 깊이 새기며 매일 밤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작은 미등도 없이 관음정진기도에 집중했다. 새벽예불을 마친 후야 새벽녘 어스름을 가리며 산문을 나서는 1500여 불자들의 행렬은 매일 장관을 이뤘다. 이들을 위해 인근 지하철역을



부산 삼광사 신도들의 관음정진 기도 모습.

경유하는 마을버스의 첫차 시간이 1시간 정도 앞당겨지기도 했다.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은 회향법문에서 "일심정진 관음정진 백만독 백일기도"에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불자들의 가슴에는 엄청난 내공이 쌓였다"며 "그 힘이 이 세상에 고무고루 퍼져나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정진해 주길 바란다"고 축하했다.

기도에 동참한 대부분은 집으로 돌아가 남편과 자녀들의 아침을 정성껏 보살렸고, 일부는 법당 한편에서 새우잡을 잡고 일터나 학교로 바로 향하기도 했다. 기도원의 원력이 나

와 가족을 향한 사랑과 삶에 대한 의지, 그리고 생활의 활력으로 변했을 을 깨어있는 모든 순간 깨달았다. 주지 화산 스님은 "회향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을 뜻하는 말"이라며 "지난 100일 백만독기도를 이뤄낸 원력으로 앞으로 더욱 정진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번 '일심정진 관음정진 백만독 백일기도' 삼광사에 이어 9월 3일 서울 관문사, 12월 6일 인천 황룡사 등 전국 10여개 천태종 사찰에서 릴레이로 이어져 100주년이 되는 2011년까지 계속된다. 박지원 기자

사명 대사 호국광장 조성 기공식

열반 400주년되는 2010년 완공 계획



9월 18일 사명 대사 호국광장 조성 기공식에 참여한 내외빈들이 지신뱃기를 하고 있다.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회장 정어)는 9월 18일 부산 어린이대공원 내 사명대사광장에서 '사명대사 호국광장 조성 기공식'을 갖고, 본격 시공에 착수했다.

이날 기공식은 부산불교연합회 장 정어 스님 이하 연합회장단, 허남식 부산광역시장, 제종모 부산시의회의장, 설동근 부산시교육감(부산시불교연합회회장)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법하게 진행됐다. 제1부 지신뱃기는 삼광사주지 화

산) 품물패의 품물한마당과 부산영산재보존회의 영산재 등이 펼쳐졌다. 이어 2부 기공식은 삼귀의례 및 반야심경 봉독, 사명대사 행장소개 및 동상건립 경과보고, 사명대사 호국광장 조성사업 설명, 내빈 축사, 정어 스님의 법어, 기공버튼 누르기 및 첫 삽 뜨기 등이 이어졌다.

사명대사 호국광장 조성은 부산불교연합회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총 예산 13억원 규모로 사명대사 열반 400주년이 되는 2010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된다. 박지원 기자

인도 문화사절단

18일 초청대공연

한국과 인도 수교 36주년을 맞아 부산광역시불교신도회(회장 공병수)는 9월 18일 부산 롯데호텔 3층 아트홀에서 '인도문화교 문화사절단 초청대공연'을 개최했다.

행사는 1·2부로 나뉘어 제1부에서는 내·외빈 소개 및 인사에는 공병수 부산불교신도회장, 허남식 부산시장, 정관 스님(영주암 회주) 등의 축사가 이어졌다. 제2부 본 공연에는 먼저 우리나라의 한소리 가야금단과 풍류전통예술원이 가야금 연주 및 모듬북, 사물놀이 공연등을 펼쳤다.

박지원 기자

범국가규모 법회 되살이나

31일 제2회 백고좌대법회 백소서 봉행

750년 만에 역사상 가장 아름답고 위대했던 백고좌대법회가 오는 10월 31일 부산 백소서에서 재현돼 눈길을 끈다.

부산 성재문화원은 10월 31일 오후 1시부터 부산 백소서 1층 전시장에서 '제2회 백고좌대법회'를 봉행한다.

백고좌대법회는 신라 진평왕 때 개설된 이래 고려 때 원나라의 외침으로 불교의 맥이 끊어지기 전까지 임금이 시주하고 주관하던 범국가 규모의 성대한 법회였다.

이때 100위의 불상과 보살상, 나한상을 모신 가운데 100명의 법사를 청해 강경하며, 사자좌 상에는 100개의 등불, 향, 꽃 등으로 삼보에 공양했다고 해 '백고좌대법회'라 부른

다. 이번 법회를 주회하고 주관하는 성재문화원 이강원 원장은 "절저한 고증을 통한 연구와 준비, 그리고 스님들께 무려 7만여 통의 편지를 보내며 성심성의껏 준비해왔다"고 회고했다. 이강원 원장은 "지난 12년은 기다림의 연속이었지만, 두 번째 법회를 한달여 앞둔 지금은 너무 행복하다"며 "이번 법회를 일회성 행사로 그치지 않고 정제화해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역동적인 행사로 계승, 발전시켜 우리나라 대표 불교행사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051)863-4441 박지원 기자

불국토를 찾아서

행복한 부산 문화지킴이 영광문화예술원

찬란한 민족문화 '영광'으로 산다

'부산' 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며? '프로야구와 부산갈매기'와 '자갈치시장의 활어회'에 소주 한잔 '일출과 관안대교 드라이브'를 떠올린다면, 최근 3년 사이 부산에 와본 적이 없거나 문화와 예술분야에 문외한일 확



영광문화예술원이 개최한 문화행사에 참석한 대중들이 진지하게 강연을 듣고 있다.

률 99%다. 부산은 지금, '영화 해운대와 국제영화제' '백스코와 전시, 컨벤션, 박람회' '부산영상제작소' 등과 함께 문화예술의 거점도시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성장의 원동력은 특정 단체나 기업, 정부의 정책이 아닌 부산 시민의 문화, 예술에 대한 자부심과 함께 지속적인 관심에서 비롯됐다. 1968년부터 40여년 넘게 부산 시민의 지식과 문화적 소양의 총체소가 되어온 영광도시(대표이사 김윤환, 부산불교설립인회장)의 부설기관인 영광문화예술원(원장 이경순)은 문화적 소통의 주요 부분을 담당하며 문화, 예술을 향한 갈증을 해소하는 집점다리가 되고 있다.

'영광문화예술원이 생기기 이전부터 영광도시 내에 공간을 마련해서 크고 작은 작가와의 만남, 독서토론회, 차문화, 사진 예술, 전시 갤러리 등 행사가 있어왔어요. 여기에 사람들이 점점 모여들었는데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문화예술원이 생겼어요. 더 즐겁고 유익하게 즐기실 수 있도록

생소했던 사진과 디지털카메라에 관한 전문교육과정을 단계별로 꾸준히 개설했다. 그리고 '졸업생 사진전시회'를 비롯한 '책과 그림, 영상으로 만나는 영광', '한불수교 120주년 기념 초대전', '한국현대사진가 10인전', '신인 사진작가 지원전', '대구 비엔날레' 등 다채로운 기획사진전과 전문예술인 양성을 위한 전시, 유명사진가 초청 강연 및 토크를 잇달라 개최했다. '처음 문화원을 열었을 때부터 함께한 회원들은 이제 각자의 분야에서 전문가로 성장했습니다. 이윤이나 이목을 바라라고 한 일이 아니라 그저 편안한 공간과 양질의 강화를 얻어줘 '신나게 즐기는 마당'을 열어주고 싶어요. 요즘 들어 인터넷서점 등의 출몰경쟁에 서점도 어렵지만, 영광도시라면 앞선 문화를 이끌고 지켜낼 문화공간을 마련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었습니니다.' 슬한 위기의 순간들을 지혜롭게 극복해낼 수 있었던 방편은 부산 시민의 문화지킴이란 사명감과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었다. (051) 816-9500 박지원 기자

화제의 불화

수월 관음도

불자가문의 변영의 수호신

여의주를 든 수월관음도는?

수월관음도는 바다물속에 비친 달속 여의주를 든 관세음보살의 밝은 모습으로 중생들의 근심, 걱정 고통과, 액운을 소멸하고 세상은 좋은 원하는 소원을 성취시키고 안년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자비로운 구제자의 영험을 보여주는 불화다. 여의주는 글자 그대로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신비의 구슬로 만가지 부적을 능가하는 영험을 지닌 여의주를 든 수월관음도는 가정의 안녕과 변영을 주고자 하는 관세음보살님의 약속으로 여의주를 들고 있는 아주 특별한 불화다.

우리나라 수월관음도는 고려시대에 왕실과 귀족 가문에서 안녕과 변영의 수호신으로 모셨으며 조선시대에는 명문 불자 가문에서 관세음 부처님손에 여의주를 들고 있는 수월관음도를 그려 점안식과 축원불공을 하고 가문의 수호신으로 집안에 모시기 시작했다.

■ 만가지 부적이 필요없는 영험!

조선시대 불화를 한국불화의 佛母金成浩화백씨가 불력으로 재현한 영험의 명작으로 점안불공과 축원불공을 마친 여의주를 든 수월관음도를 보는 순간 누구나 영험을 느끼게 된다. 수월관을 이어갈 가문의 소장품으로 가정에서는 자자손손 안녕과 변영의 수호신으로 방, 또는 거실, 사업장에 걸면 대단히 풀 위가 있다. 3단 최고급 액자와 100% 천연 전통 한지에 판화 인쇄된 수월관음도는 특별 제작한 불화로 액자 뒷면에는 불광사 보증서와 대대로 물려주게 소장인원이 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특급택배로 안전하게 보내드립니다.

규격 : 가로 67cm×세로85cm 가격195,000원
문의전화 : (02)741-4488 (일요일,공휴일도 상담)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신용카드분할가능)

사업장의 법구 금강 삼고저

장사흥왕과 사업성공 축원 불공 마치고 보급

경기가 너무없어, 장사가 너무안되, 문물달아 야겠어, 요즘 사업을 하는 중생들의 푸념이다. 반면 폭도 많고 불경기도 흉왕을 누리는 점포와 사업장도 많다. 장사가 안되는 자리를 보면 장사하는 중생의 지혜도 부족하지만 터도 세고 보이지 않는 잡귀의 방해로 오는손님의 마음을 흔들며 문앞에서 방황하게 만들고, 일하는 사람이나 직원들은 오래 있지 못하고 첫손님이 첫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헛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삼고저는 사업장의 화를 미리 쫓고 잡귀를 물리치며 사업성공의 수호신으로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박물관에서 유물로 볼수 있다. 일본의 경

우 식당과 점포, 각종 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 있는 것을 쉽게 볼수있다. 불광사에서 장사흥왕및 사업번창과 산재예방의 축원불공을 마친 금강삼고저를 사업장 안에 걸어 놓으면 금리로 제작해 풀위도 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가격: 85,000원(신용카드 분할가능) 문의 (02)741-4488 (사찰스님 20%할인) 농협: 032-12-193445 이상하

장사 성공을 축원합니다

성당, 기둥, 의류점, 보석상, 부동산중개소, 이민홍살, 육류점, 다방, 장학점, 노래방, 주점, 모텔, 여관, 병원, 각종호텔, PC방, 당구장, 사점, 인쇄소, 문방구, 기원, 복합점, 각종스포츠센터, 핸드폰점, 분양사무소, 안경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용실, 방앗간, 공점, 주유소, 산재사고 위험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번창.

자동차용호신불

세상에서 평생 아름다운 선물!

자동차를 타고가다보면 운전석위에 영주를 고정시켜 걸고 다니는 차를 종종 보게된다. 영주는 부처님께 예물을 드리는 공양법구로 차에 고정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부처님 법구중에는 다니면서 액운과 화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호신불이 있다. 우리나라 호신불은 신라시대 전쟁에 나가는 장수들과 귀족들이 지니고 다녔다. 신라가 통일전쟁을 벌일때에 화랑장수와 화랑장수의 말에 왕이 직접 전장에서 죽지말고 승리하고 오라는 뜻에서 목각으로 만든 반가사유상호신불을 하사 했으며 호신불을 가지고 전장에 나간 장수와 말은 죽지 않고 승리하고 왔다고 한다. 하루에도 교통사고로 수백명씩

신차출고시 사고예방의 필수품! 운전하는 가족친지에게 사고예방의 선물

사망 또는 중증상으로 인한환이 없는 오늘도 안녕을 지키는 호신불을 운전하는 아내와 자녀에게, 남편과 친자에게 사고예방과 생명안전을 기원하는 선물을 한다면 평생 아름다운 선물이 될것입니다. 호신불 뒷면에는 운전하고 가는곳마다 계획한 일들이 성공되게 비방의 '반장'과 백엔화를 넣었고 생명보호와 사고 예방 축원불공을 마친 금니호신불을 운전석 위 툴미러에 걸고 다니면 안전하고 풀위가 있다.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이 있으며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가격 45,000원. 신청전화: (02)741-4488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사찰스님 30%할인)